

# IPAK 회관에 소프트웨어 부품 도서 관을 만들자

김 동 익

(교보정보통신(주) 상무)

1970년 7월 정부 EDPS요원 전문과정을 시작으로 S/W 세계에 입문한지도 벌써 26년 5개월의 세월이 흘렀다. 현재까지의 세월을 날짜로 계산하니 9,640일, 내년 말이면 1만일 기념식이라도 가져야 할 판이다. 이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내가 정보처리전문가로서 한 일은 무엇인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또한 많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관리해 온 듯하다. 그러나, 그동안 해 온 모든 것이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도 찾을 수 없고, 내가 설계한 화면, 장표나 보고서 양식, 화일 설계 모두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나 뿐만이 아니라, 정보처리 분야의 많은 분들이 밤잠 안자고, 땀 흘려 설계하고, 개

발해 놓은 많은 것이 세월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과연 우리가 개발해 놓은 모든것이 재활용 될 수는 없는 것인가?

몇 년 전, 일본에서 개최된 소프트웨어 세미나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그 세미나의 주제는 「4GL」에 관한 것이었으나, 이야기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매우 인상깊게 남았다.

「소프트웨어는 화면과 장표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프로세스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화면, 장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것이 9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4GL」은 화면과 장표, 데이터베이스를 사전으로 등록하고, 변경과 이용이 손쉽게 되어 있어, 소프트웨어개발의 생산성을 매우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매우 공감이가는 이야기였다. 내가 설계한 화면과 장표, 데이터베이스도 어딘가에 등록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 모든 정보처리전문가가 설계했던 화면과 장표, 데이터베이스가 등록되어, 재활용되고 있다면 우리의 소프트웨어 생산성은 수백 퍼센트 향상되지 않을까?

나는 한때 우선 전산출력 양식만이라도 모으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전산실에서 인쇄되어 나오는 양식을 한장씩 견본으로 모았었다.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산출력 양식 견본집도 구매하였다. 처음에는 하나, 둘 모이는가 싶

더니, 전담자가 없으니까 흐지부지 돼 버렸다. 모아둔 견본 집도 이리저리 굴리다가, 누군가 가져가 버렸는지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다. 여러해 전에는 일본 통산성이 앞장서서 소프트웨어 재활용을 위하여 「SIGMA Project」를 추진한다고 했다. 그 후 우리나라에서도 SERI가 앞장서서 「Super Project」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재활용을 위한 연구를 한다고 했다. 나도 관련 회의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지지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 모두가 이제는 흐지부지되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 왜일까? 이해가 안됐다.

그런데 지난 달 출장을 가는 중에 Data Show'96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하루종일 전시장을 둘러보느라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여 쉴 곳을 찾으니, 눈앞에 「소프트웨어 부품 혁명」이라는 전시 부스가 보였다. 그 앞은 사람이 없어 한산해 보였다. 다가가서 의자에 걸터 앉으니, 「소프트웨어 부품 혁명」이란 책을 쓴 한 고집스런 전문가 사장님이 약 2,000개의 소프트웨어 부품을 체계있게 모아 패키지로 공급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일본 내 우수 기업들과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부품을 계속 제공받고 있다 한다. 한참 설명을 듣고 있으니, 그 사장의 경영철학과 전문성이 존

경스러웠다.

우리도 그와 같이 소프트웨어 부품을 모을 수는 없을까?

소프트웨어의 부품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는 있겠으나, 우선 소프트웨어의 90%를 차지한다는 화면과 장표, 데이터베이스만이라도 모아 활용할 수는 없을까?

나는 우리 정보처리전문가모임이 이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소프트웨어 부품 도서관」을 IPAK회관 내에 만들고, 각자 하루에 1개씩의 소프트웨어 부품을 「소프트웨어 부품 도서관」에 가져왔으면 좋겠다. 매일이 벽차다면, 한 달에 1개씩만 이라도……

그러면 우리 회원이 260명이 넘으니까, 한 달에 260개, 일년에 3,120개, 10년이면 31,200개……

우리가 살아온 자취를 버리지 말고, 전부 모아보자. 그리하여 우리의 후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더 많은 소프트웨어 부품을 모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품 도서관」을 운영하였으면 좋겠다.